

중경삼림

수출입 지표로 본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연계 강화

4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2.3% 증가하여,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수요 반등이 예상 대비 훨씬 가팔랐던 점과 노동집약형 산업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신흥국들이 아직까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특징적이었던 점은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이 189%나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경제적 유대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4월 수출액 전년동월대비 32.3% 증가, 11개월 연속 순증

7일 발표된 중국 4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2.3% 증가, 3월 기록(30.1%)과 예상치(24.1%)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줌. 같은 기간 발표된 수입액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및 해운 운임 상승과 중국 내수 경기 반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3.1% 증가, 전월 기록(38.1%)을 상회. [그림 1] 이번 수출 지표 서프라이즈의 배경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소가 모두 작용

수요: 美 경제 활동 재개와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재개가 이뤄진 점과 잇따른 부양책 발표로 기대심리가 고조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그림 2] 4월 미국과 영국향 수출액은 각각 31.2%, 60.2% 증가. 백신 물량 부족으로 경제 재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EU향 수출액(23.8%)은 英美 대비는 증가율이 작았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그림 3]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4월 취임 후 세번째 재정지출안을 발표하였으며, 정부의 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 확대에 나서고 있음. 또한 태백근무가 종료되고 직장으로 복귀가 이뤄짐에 따라 사무업무 및 대외활동 용품에 대한 새로운 니즈가 창출되는 중. 코로나19 기간 가장 큰 수혜를 누렸던 IT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반증(LCD 74.8%, 집적회로 38.2%) [그림 4]

현재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일본과 신흥국도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이는 중국 수출 경기가 현재의 고점에서 연착륙하도록 도울 수 있는 요소

공급: 인도, 동남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사슬망 대체효과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과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인도, 말레이시아·태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이 공급사슬망 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올해 연초 대비하여 4월 말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각각 약 2배, 3.5배, 10배가량 증가 [그림 7]

동남아시아는 1)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향과 2) 태국의 '송끄란(4/12~15)' 등 명절 연휴 기간 이동 인원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상황. 5월의 경우 인도네시아 명절인 '르바란(5/12~14)'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중국 경제를 삼림 분안에 팩트있게

연구원. 박기현, 02-3773-9006
Economist. 안영진, 02-3773-8478

동남아시아의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공급사슬망 대체효과는 경공업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선진국에서 외부활동 증가로 늘어난 의류(65.0%), 신발(59.1%) 등 소비재 수요를 상당 부분 중국이 흡수. [그림 5] 4월 중국 정부에서 집계하는 7대 노동 집약형 수출품(전체 수출액의 17%)*의 수출액은 YTD 기준으로 '20년 대비 40.3%, '19년 대비 26.4% 증가 [그림 6]

*7대 노동집약형 수출품: 플라스틱, 가방, 섬유, 의류, 신발, 장난감, 가구

中 수출 경기 호조 상반기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4월 수출입동향을 통해 중국 수출 경기가 아직까지 활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당사는 이러한 경기 호조는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제조업 경기 고점과 함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 수출액 증가율은 하반기부터는 일본과 신흥국 등 후발주자들의 경기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음 수입의 경우 1) 중국 정부의 내수 증진 노력과 2)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3) 전년도의 기저효과에 힘입어 하반기까지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

4월 對인도 수입액 189% 증가, 월간 수입액 역대 최고치 경신

4월 수출입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중국의 對인도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143.8%, 189.1% 증가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그림 8] 수출액 증가의 경우 최근 인도 내 코로나 19 재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인도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적 수요가 높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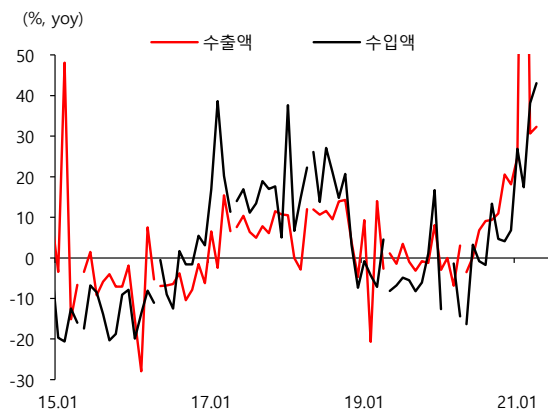
수입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도와의 경제적 연계를 심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이 있었음. 작년에 발생한 국경 분쟁으로 상대적으로 원만하던 中印 관계는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인도에서는 중국산 물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발생. 중국은 이를 의식하여 작년 6월부터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을 큰 폭으로 늘렸으며,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인도의 제1 무역 파트너로 등극

中印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중국의 산업 발전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대두되기 시작. 인도의 對중국 적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7년 594억달러로 정점을 찍었음. [그림 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는 6시간간의 회담을 가졌으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고위급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 때문에 인도의 대중국 적자는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 [그림 10]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작년 말 중국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對중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체결하기를 거부. 중국 입장에서 향후 거대한 경제권으로 성장할 인도를 자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인 RCEP로 복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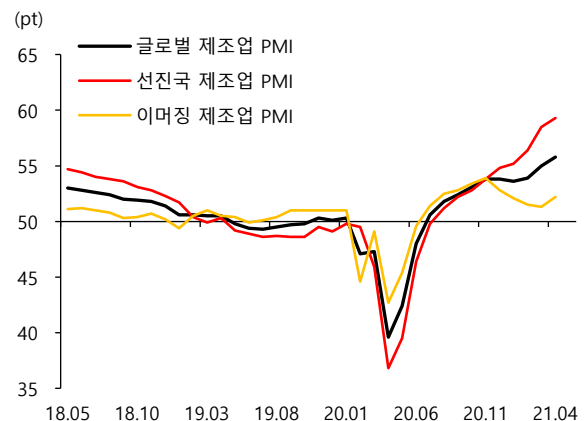
미국 등 서방 입장에서도 對중국 포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인도의 협조가 필수적. 때문에 미국은 인도를 쿼드(QUAD)의 일원으로 포함시켰으며, EU 역시 인도와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필적하는 인프라투자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겠다 발표한 바 있음. [그림 11]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의 잠재성으로 인해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인도를 포섭하기 위한 구애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도 경제를 부상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1] 中 수출입은 기저효과종료 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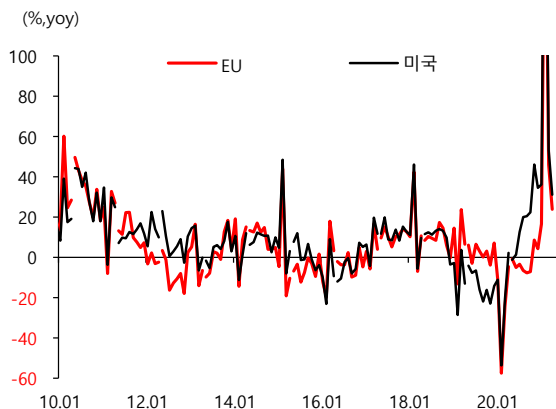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 증권

[그림 2] 선진국 제조업 반등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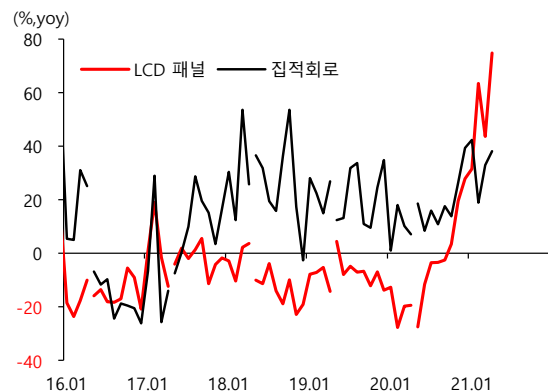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 증권

[그림 3] 중국의 對 미국, EU 수출액 증가율은 10 년래 최고 수준



자료 : Bloomberg,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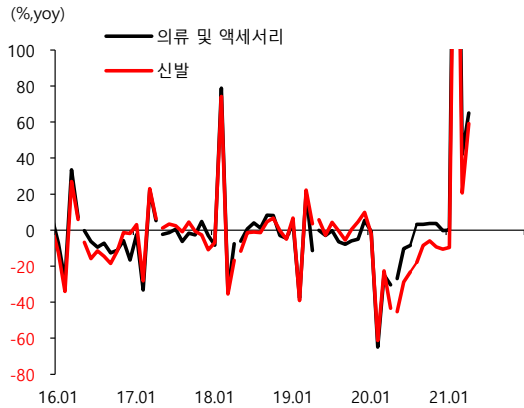
[그림 4] IT 제품 수출은 코로나 19 국면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조



자료 : Bloomberg,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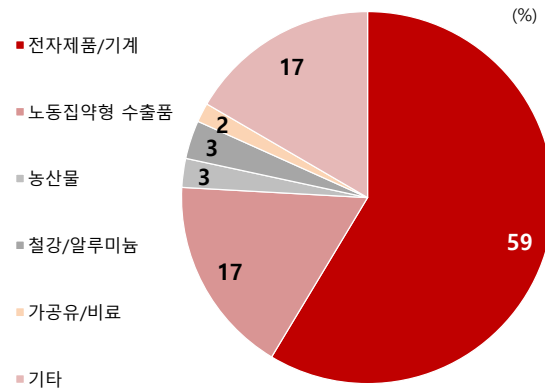
[중국 경제를 삼분안에 임팩트있게]

[그림 5] 경제활동 재개로 의류, 신발 등의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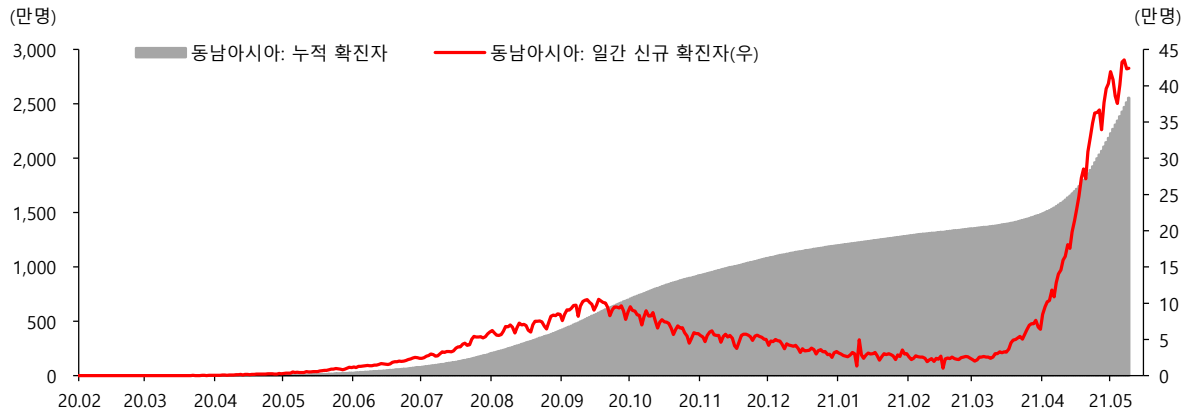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 증권

[그림 6] 노동집약형 제품은 여전히 중국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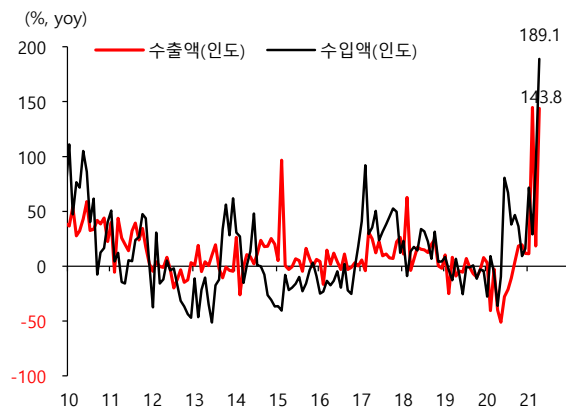
자료 : CEIC, SK 증권

[그림 7] IMF는 올해 들어 발생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코로나 19 확산세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4.9%로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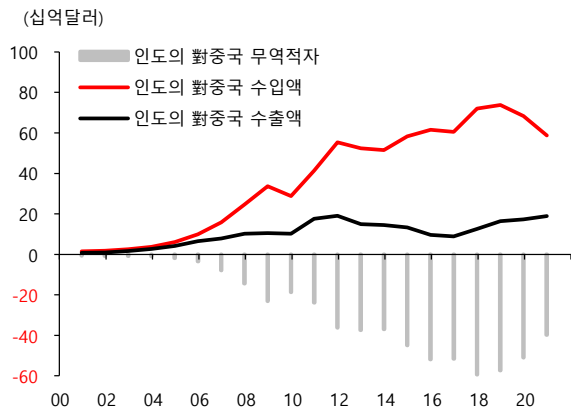
자료 : CEIC, SK 증권

[그림 8] 중국의 對인도 수출액과 수입액은 4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자료 : CEIC, SK 증권

[그림 9] 인도의 對중국 무역 적자는 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자료 : CEIC, SK 증권

[그림 10] 19 년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는 6 시간간의 회담을 통해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



자료 : 언론종합, SK 증권

[그림 11] 인도는 미국의 중국 포위망,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일원



자료 : news1, SK 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박기현, 안영진)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